

## 한부모가정 및 일반가정 청소년의 불안,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박지혜\*\* · 김근향\*\* · 고영건\*\*\*

### 초 록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정의 대표적인 사유가 되는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불안과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양상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대전 등지의 중고등학교 한부모가정 청소년 80명 및 일반가정 청소년 98명을 대상으로 불안, 사회적응,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낙관성이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불안과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정 청소년들에게서 불안과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낙관성 점수가 높은 경우, 불안 수준이 높더라도 더욱 높은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낙관성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심리사회적응 및 개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한부모가정 청소년, 낙관성, 불안, 사회적응, 주관적 안녕감

\* 이 논문은 박지혜의 2011년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차(CH)의과대학 교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elip@korea.ac.kr

## I. 서 론

한부모 가족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유기 등의 이유로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이 포함된다(법무부, 2014).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말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약 16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또한 한부모 가정은 단순한 가족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의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 및 정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신애란, 2002).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발생 과정 및 그 원인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혼가정과 사별가정 이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별과 이혼 경험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적응 정도에도 차이가 있으며(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2009), 이혼가정 이동의 적응적인 행동 평가가 사별가정 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송다영, 한정원, 2003). 이렇듯 한부모 가정의 발생 사유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며,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고 최근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큰 점들을 고려할 때, 이혼가정 청소년들에게 보다 강조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혼가정이라는 지칭이 사회적인 스티그마(stigma)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한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혼과 같은 생활사건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Amato와 Keith(1991)에 따르면 한부모가정과 같은 일반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는 그 상태와 영향이 오래도록 지속되며 생활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다른 부정적 생활 사건과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한쪽 부모와의 분리 및 가족구조의 해체가 청소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서적인 측면이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원치 않게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와 고통, 죄책감, 불안 등의 지속적인 부적 정서를 가지게 하며(Carlson & Corcoran, 2001; McLanahan & Sandefur, 1994), 우울감과 같은 정

서적 고통감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Kelly, 2000; Strohschein, 2005). 둘째는 사회적 대인관계 측면이다. 한쪽 부모와의 분리는 양쪽 부모의 존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화의 기회가 박탈되고 성역할 기대가 깨어지는 경향이 된다(Amato, 1993). 또한 이후 성인기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tell, 2006). 셋째는 발달적 측면이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한부모와의 분리, 특히 부모의 이혼과 같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위기와 격변은 이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방해하게 되며(Hines, 1997), 신체적 건강과 기능 발달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Troxel & Matthews, 2004).

정서, 대인관계, 발달 등의 여러 가지 측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우울, 불안 수준(동승자, 2000;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주소희, 1991; Hoyt, Cowen, Pedro-Carroll & Alpert-Gillis, 1990), 및 낮은 주관적 안녕감과 불만족감을 나타낸다고 보고된다(Storksen, Roysamb, Holmen & Tambs, 2006). 일반적으로 이 같은 부정적 정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불안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또래관계, 사회적 행동, 인지적 수행 등의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Strauss, Frame & Forehand, 1987).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에 그들이 경험하는 우울, 불안 및 소극적인 태도는 학교 및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청송, 2012; 배요한, 2009; 이혜승, 2004). 또한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생활사건(life event)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Vinokur & Selzer, 1975; Zautra & Reich, 1983).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정의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인지적 요인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의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를 고려할 때, 한쪽 부모와의 갑작스런 분리 및 가족구조 해체와 같은 사건이 자녀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큰 손상을 입힐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정신병리적인 특성과 부정적 적응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Aseltine, 1996). 그러나 이후 대규모의 종단연구가 가능해지면서 가족구조의 해체 이후 정서적 혼란기가 지나면 대부분 이전의 적응적인 상태로 돌아

오며, 이전보다 나은 적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Amato & Keith, 1991; Lansdal, Cherlin & Kiernan, 1995). 이에 최근에는 부모의 이혼과 같은 사건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보다 만족스럽고 충만한 내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Hetherington, 1999).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한쪽 부모와의 분리 및 가족구조의 붕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잘 다루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역경과 그로 인한 부정적 정서 상태에 대한 보호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를 함양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 연구에서, Garmezy와 Rutter(1983)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긍정적인 성격특성, 지지적인 가족환경, 외부사회자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보호요인들은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재적인 자원을 밝혀내어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Rutter, 1987). 보호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가족환경과 관계 및 외부 지지자원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가족탄력성(Shin, Choi, Kim & Kim, 2010), 부모와의 관계(최창숙, 2007; Falci, 2006; Risch, Jodl & Eccles, 2004), 부모양육행동(이가은, 2008; Emery, Waldron, Kitmann & Aaron, 1999; Johnston, 1995), 양육 부모와의 의사소통(김묘정, 2005),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ilitsky, 1996; Teja & Stolberg, 1993)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이들의 적응에 있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 내적인 심리적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환경적 요인 외에 개인 내적, 혹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 및 관계, 그리고 외부환경적 개입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의 심리내적인 특성을 함께 계발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면 어떤 역경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이를 견뎌낼 수 있는 자원을 가짐으로서 청소년들의 실제적 사회적응과 주관적인 안녕감에 있어서 더욱 만족스럽고 통합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내적인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 제안하는 강점에 주목할 만하다. 긍정심리학적 접근에 의하면,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들의 부

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뿐만 아니라(Botvin, Baker, Dusenbury, Botvin & Diaz, 1995),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Colby & Damon, 2010; Park, 2004; Weissberg & Greenberg, 1998). 또한 희망(hope), 친절(kindness),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과 같은 특정 강점과 자기 통제력(self-control)은 스트레스나 외상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에 완충효과를 가지며, 심각한 장애로의 이행을 예방한다고 하였다(Park & Peterson, 2008). 이러한 점들로 볼 때,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점 자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이혼 후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인 우울감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및 그 과정에서의 갈등 상황이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김성태, 1990; 동승자, 2000; 주소희, 1991; McLanahan & Sandefur, 1994),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옥현, 손현규, 2004;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최미경, 2013). 또한 불안의 인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기저에는 부모의 이혼을 상실로 지각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공포와 같은 부정적 인지체계가 기초되어 있다고 한다(정연옥 외, 2007). 또한 이혼 가정 청소년들은 위협이나 상실과 관련된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편향된 지각을 나타내며, 이 같은 역기능적 정보처리는 정동장애의 위험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ecken & Appelhans, 2005). 이처럼 불안은 과거 사건으로 인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험을 할 것에 대한 예기불안을 야기하기 쉬우며, 이는 현실에서의 과업에 몰두하는 것을 더욱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대두되는 많은 강점들 중 낙관성(optimism)의 개념은 과거의 스트레스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부정적 사건 경험 및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인지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과거 부모의 이혼과 상실을 경험하였고 그 영향이 현재와 미래에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낙관성이 그들의 역경을 극복하고 과거에 머물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낙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낙관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Gillham과 Reivich(2004)에 따르면, 첫째는 유전적인 요인이다.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일란성 쌍둥이에서 서로의 설명 양식이 보다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고(Schulman, Keith & Seligman, 1993), 낙관성을 설명하는 변인 중 약 25%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Plomin et al., 1992), 유전적 요인 중 대부분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에서의 기질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son, 1999). 둘째는 부정적 사건으로, 특히 만성적이거나 외상적인 사건은 비관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높은 수준의 부모 갈등에 노출된 아동들은 보다 비관적인 설명 양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ibb et al., 2001). 셋째는, 부모의 양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가 세상을 안전한 기반으로 여긴다면 아동이 더욱 탐색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성취와 낙관성을 발전시키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역경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이 아동에게 전달되어 이를 모델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yder, 2000). 넷째는 교사, 또래,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지역사회와 미디어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자면, 낙관성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부정적 사건이나 역경 자체가 비관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이 같은 경험이 없는 낙관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위기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낙관성은 이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질적인 낙관성(dispositional optimism)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인 Scheier와 Carver(1992)에 따르면, 낙관성은 개인의 삶에서 미래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일컬으며 이를 성격적인 특성으로 구분되는 기질적 낙관성으로 보았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목표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낙관성과 비관성을 구분하였으며, 기질적인 낙관성은 바라는 결과 및 효과적인 대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Scheier, Weintraub & Carver, 1986). 두 번째는 설명양식에 따른 낙관성으로, Buchanan과 Seligman(1995)은 개인의 특징적인 귀인양식(attribution style), 즉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낙관성을 정의하였다. Seligman(2011)에 의하면, 개인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일시적이거나, 특수한 것이거나, 외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낙관적이며, 반대로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영속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나,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정적 사건의 원인이 시간적으로 현재의 사건에만 국한된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후에 다시 부정적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원인이 현 상황에 특수한 것으로 본다면 다른 장면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원인이 개인 내적인 특성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상황적 요인의 변화를 통해 이후의 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Peterson(2000)에 의하면 낙관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에서의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서로 일치하며, 각각을 측정하는 도구들 간의 상관이나 두 가지 구성개념의 수렴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낙관성이 미래의 실제적 긍정적 결과와 상관이 높다는 점 또한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기질적인 낙관성이 원하는 바가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순수한 측정치를 나타낸다면, 귀인이론에 의한 낙관성은 추가적으로 인과성을 반영하여 어떻게 원하는 바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다(Peterson, 2000). 이에 개인의 귀인양식을 살펴보는 것이 개인이 원하는 긍정적 결과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해주며, 사고 양식의 수렴과 훈련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Seligman이 제안한 낙관성의 장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인 양식을 통해 낙관성을 측정하고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개인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일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으며(김주용, 이지연, 2007; 정혜연, 이정윤, 2009), 장옥란(2006)의 연구에서는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긍정적 사고와 가치관 형성 및 원만한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김민정, 이희경, 2006; 김정수, 2008), 특히 윤지혜와 이민규(2007)는 상기 언급한 낙관성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인 긍정적 기대감과 낙관적 설명양식이 모두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낙관성은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가족구조의 붕괴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들의 정신건강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

결과를 내리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특히 귀인양식에 따른 낙관성이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면 아직 성인기에 접어들기 이전인 그들에게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불안이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일반가정 청소년의 양상과 비교해봄으로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특화된 개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방 법

### 1.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불안,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 가설로서,

첫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불안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불안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에서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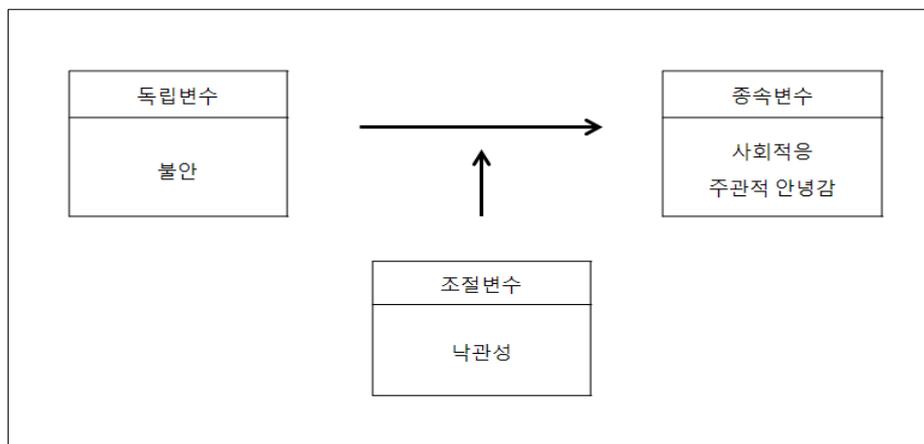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권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 공문에 동의하여 연구가 가능한 기관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충남 지역의 13개 중·고등학교 (7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에 출석하는 일반가정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총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고, 이 중 한부모가정 청소년 113명의 설문지 중 결측치를 포함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정 발생 사유(이혼, 사별, 별거 등)에 따른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이혼가정 청소년만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이혼가정 청소년 80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들의 나이, 성별을 통제하여 일반가정 청소년들 중 연구집단과 비슷한 수를 무선으로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 80명, 일반가정 청소년 98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검사결과는 개별적으로 피드백하였다.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정 청소년 80명 중 남자는 23명(28.8%), 여자는 57명(71.3%)이었고, 중학생은 49명(61.3%), 고등학생은 31명(38.7%)이었다.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 98명 중 남자는 32명(32.7%), 여자는 66명(67.3%)이었고, 중학생은 54명(55.1%), 고등학생은 44명(44.9%)였다.

### 3. 측정도구

#### 1)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Children's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CASQ)

Seligman et al.(1984)은 언어습관과 귀인양식을 통해 낙관성을 측정하는 아동 및 청소년용 낙관성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문식과 최호영(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24문항은 현실에서 일어났직한 긍정적 사건, 나머지는 부정적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사건의 서로 다른 원인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답안 중 어떤 것이 사건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척도는 영속성, 보편성, 개인화의 3가지 하위차원에 따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영속성(Permanent Bad; PmB), 긍정적 사건에 대한 영속성(Permanent Good; PmG), 부정적 사건에 대한 보편성(Pervasive Bad; PvB), 긍정적 사건에 대한 보편성(Pervasive Good; PvG), 부정적 사건에 대한 개인화(Personalization Bad; PsB), 긍정적 사건에 대한 개인화(Personalized Good; PsG)와 같은 여섯 차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나쁜 일에 대한 영속성이란 나쁜 일의 원인이 시간적 차원에서 계속되어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반대로 좋은 일에 대한 영속성이란 좋은 일이 계속될 것이며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보편성이란 특정 사건의 원인이 다양한 장면이나 상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건 자체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낸다. 개인화란 어떤 일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다고 믿는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있다고 믿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하위 차원인 PmB, PvB, PsB 세 가지를 합한 것이 B(Bad) 점수로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이다. PmG, PvG, PsG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G(Good)점수로서 긍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이다. 낙관성 점수는 G점수와 B점수의 차이(G-B)에 의해 산출된다. Seligman et al.(1984)의 원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51로 나타났고, 하위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뢰도를 구했을 때, B점수의 신뢰도는 .60, G점수의 신뢰도는 .64로 나타났다.

## 2) 표출 불안 척도(Taylor's Manifest Anxiety Scale; TMAS)

본 연구에서는 Bendig(1956)의 단축형 표출불안척도를 이용승(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예'에 해당하는 개수를 합산한 것이 불안의 총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3) 한국어판 사회적응 자기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KvSASS)

사회적응 자기평가 척도(SASS)는 Bosc, Dubini and Polin(1997)이 사회적 동기 및 행동 평가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김형섭, 김용구, 윤충한, 정한용과 정영기(2000)가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마친 한국어판 사회적응 자기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다.

## 4) 주관적 안녕감 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 Campbell, Converse and Rodgers(1976)가 개발하고 한정원(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지표는 개인이 최근 몇 달 간 삶에서 느낀 보편적인 감정 지표(index of general affect)에 해당하는 9문항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단일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4. 통계적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불안과 심리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불안과 낙관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센터링(centering) 과정이 필요한데(박광배, 2003),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들 중 연속 변인들의 총점을 z 점수로 변환하였다(Frazier, Tix & Barron, 2004).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였다.

### III. 결 과

#### 1. 불안, 낙관성,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청소년들이 성별에 따라 가족구조의 해체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 상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중, 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변인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는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들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되는 교육 단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2. 불안, 낙관성,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 간 상관관계분석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1, 일반가정 청소년을 -1로 대비코딩한 집단 유형은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사회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며, 사회적응 수준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낙관성은 불안과 부적 상관을,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안은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가족 유형, 불안, 낙관성,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 간 상관(N=178)

	가족 유형 <sup>1)</sup>	낙관성	불안	사회적응	주관적 안녕감
가족 유형	-				
낙관성	-.13	-			
불안	.18*	-.50**	-		
사회적응	-.18*	.47**	-.54**	-	
주관적 안녕감	-.05	.45**	-.69**	.60**	-

\* $p < .05$ . \*\* $p < .01$ .

### 3.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활용해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상호작용 항이 회귀식에 포함되었을 때  $R^2$ 의 변화량이 유의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에서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 변량은 약 34%( $R^2=.34$ )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5% ( $\Delta R^2=.05$ )였다. 이원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약 4%( $\Delta R^2=.04$ )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불안과 사회적응 간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Sig.  $\Delta F=.60, p>.05$ ).

1) 한부모가정 여부에 따른 집단을 각각 대비코딩 하였음(한부모 가정 1, 일반 -1).

표 2

불안과 낙관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약

준거변인 : 사회적응					
집단구분	투입 순서	예언변인	$\beta$	$\Delta F$	$\Delta R^2$
한부모가족 청소년 (N=80)	1	불안(A)	-.59	40.82	.34***
	2	낙관성(B)	.25	5.89	.05*
	3	불안x낙관성 (AxB)	.22	5.89	.04*
일반가정 청소년 (N=98)	1	불안(A)	-.49	30.62	.24***
	2	낙관성(B)	.27	7.56	.06*
	3	불안x낙관성 (AxB)	.05	.27	.00

\* $p < .05$ . \*\*\* $p < .001$ .

그림 2에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도표화하였다. 불안과 낙관성 척도에서 상하의 구분을 z 점수 분포상에서의 표준편차 1과 -1 지점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sup>2)</sup>, 낙관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 비해 낙관성 점수가 높은 경우 높은 불안 수준에서도 적응 수준을 보다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 관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 조절변인이 연속변인인 경우, 조절변수의 수준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프 작성을 위해 편의상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의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다(홍세희, 2007; Frazier et al.,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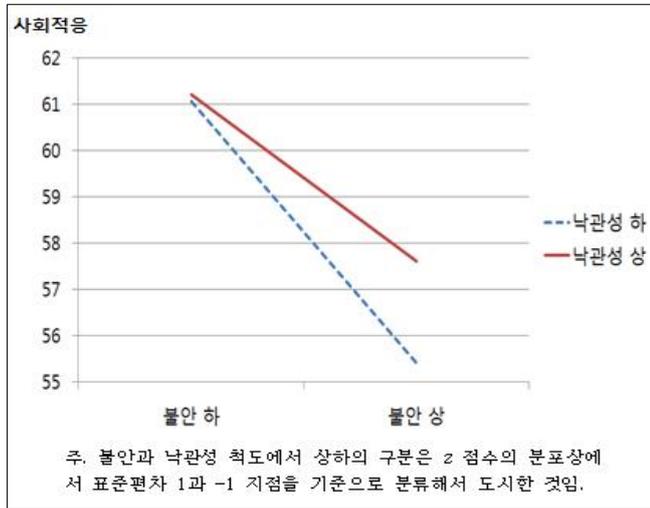


그림 2.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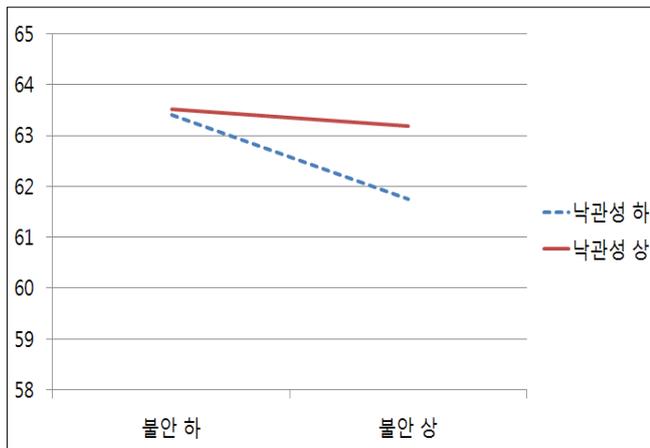


그림 3.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관계(상호작용 효과 없음)

다음으로 한부모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상호작용

용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 변량은 약 42%( $R^2=.42$ )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약 3%( $\Delta R^2=.03$ )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불안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ig.  $\Delta F=.60, p>.05$ ).

그림 4에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하였다. 불안과 낙관성 척도에서 상하의 구분을 z 점수 분포 상에서의 표준편차 1과 -1 지점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낙관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 비해 낙관성 점수가 높은 경우 높은 불안 수준에서도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보다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 관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 3

한부모가정 청소년 및 일반가정 청소년에서 불안과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약

준거변인 : 주관적 안녕감					
집단구분	투입 순서	예언변인	$\beta$	$\Delta F$	$\Delta R^2$
한부모가정 청소년 (N=80)	1	불안(A)	-.65	57.02	.42***
	2	낙관성(B)	.17	3.01	.02
	3	불안x낙관성 (AxB)	.18	4.28	.03*
일반가정 청소년 (N=98)	1	불안(A)	-.72	103.45	.52***
	2	낙관성(B)	.13	2.43	.01
	3	불안x낙관성 (AxB)	-.04	.25	.00

\* $p < .05$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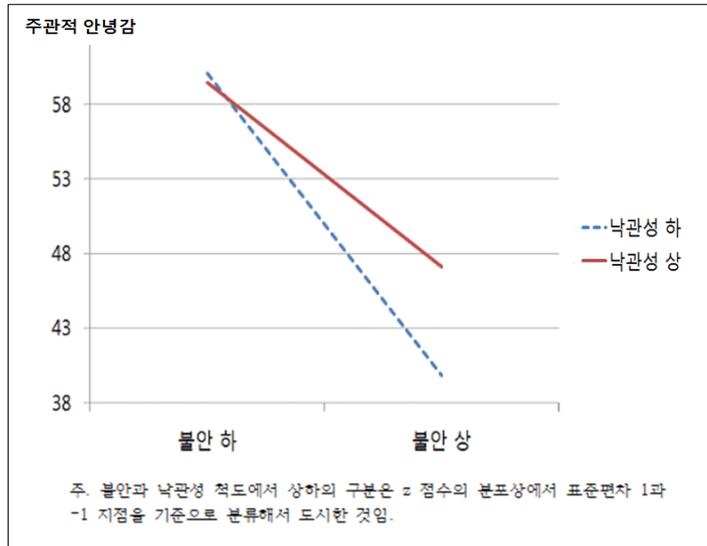


그림 4.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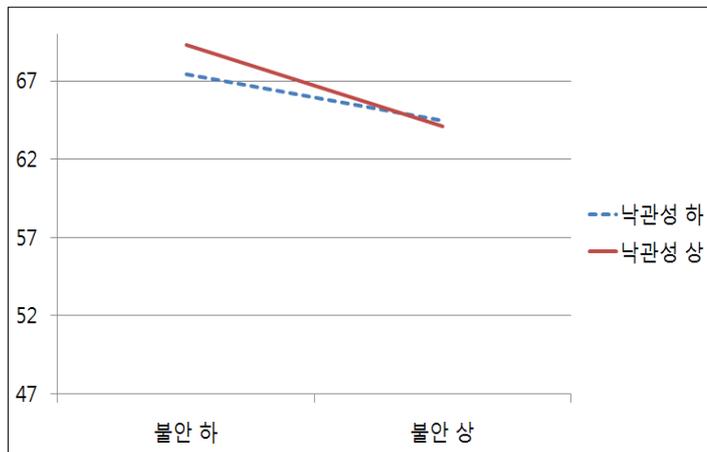


그림 5. 일반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의 관계(상호작용 효과 없음)

##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불안이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앞서 언급한 연구가설대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불안과 낙관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불안수준이 높더라도 낙관성 또한 함께 높다면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부적 정서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김청송(2012)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일반가정 청소년의 부적 정서와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힌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밝혔다는 차이가 있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와 경로를 설명하지만, 조절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나 강도를 변화시킨다는 차이가 있다(Frazier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서의 낙관성은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이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호요인으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혀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변화 및 훈련이 가능한 인지적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낙관성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긍정적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 가능성 및 개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이혼을 상실로 받아들이며,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연옥 외, 2007), 상실과 위협에 관한 단서에 보다 편향적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uecken & Appelhans, 2005). 이 같은 부정적 인지 양식은 현 상황 및 미래에 대한 높은 걱정 수준과 예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는데도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및 사건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나타내는 낙관성을 증진시킨다면 이 같은 부정적 인지 및 정서 체계에 완충작용을 하여 실제적 심리사회기능 저하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되고, 주관적

안녕감 또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Mathews(1990)는 적절한 불안은 부정적 자극이나 외부 위협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준비성을 갖게 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낙관성은 개인이 가진 과도한 불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줌으로써 이 같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일반가정 청소년에게서는 불안과 낙관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의 조절효과가 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서 보다 특정적으로 나타나며, 가족구조의 해체 및 한부모와의 분리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보다 특성화된 보호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 낙관성은 역경이 그들의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정 청소년들과 일반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 불안과 낙관성의 관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즉 한부모가족 청소년에게서 낙관성이 사회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었으나, 일반가정 청소년에게는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특성을 확인하고, 일반가정 청소년들과 차별화된 보다 개별적이고 특화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떡어쓰기)본 연구 결과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상실 경험과 같은 부정적 사건으로 유발된 정서적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기능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 결과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 그 자체보다 낙관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들의 주관적, 실제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낙관성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을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인 요인 등의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 그 효과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과 같은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부모, 교사, 혹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역할과 개입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낙관적 귀인 양식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 프로그램

들을 살펴보자면, 학교 장면에서 낙관성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예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활용한 ‘펜 긍정성 프로그램(Penn Optimism Program; POP)’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2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입 후 3년 뒤 불안의 유의미한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Kane, Bishop, Cross & Fenton, 2004). 또한 호주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지 긍정성 프로그램(Aussie Optimism Program)’의 효과성 또한 확인된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재화 문제의 인지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긍정적 사고 기술 프로그램(Optimistic Thinking Skills Program)’(Roberts et al., 2003)과 사회적 위험 및 보호 요인을 탐색하는 ‘사회 기술 프로그램(Social life Skill Program)’(Roberts, Ballantyne, van der Klift & Quan Sing-Rowlands, 200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낙관성의 개념과 같이 자신, 환경,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깨닫고 도전시키는 것이 우울과 불안 증상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Kendall, 2011). 이에 더하여 낙관성이 사건에 대한 귀인(attribution)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Seligman et al. (1988)의 ‘귀인 재훈련 프로그램(Attribution Retraining Program)’ 또한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 경험에 대해 보다 적응적이고 낙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들 간 관계성의 파악을 위해 보다 객관적인 심리사회적 적용 수준과 각 변인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측정 도구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추후에는 이렇게 심리내적인 변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불안, 낙관성,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횡단적인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단적, 장기적으로 낙관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지역과 학교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자료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소수자 집단이며 접근이 차단된 경로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제한적이며, 연구대상인 중, 고등학생 집단 내에서 나이의 분포와 성별이

자연적인 분포를 따르지 못하는 점도 일반화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및 교육수준 등의 변인들을 통제하였으나, 그 밖에 다른 특성의 변인들, 예를 들어 양육 부모, 한부모가정의 발생 사유, 갈등 수준, 경제적 어려움, 혹은 현 양육부모와의 관계의 질 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확대가족의 지지나 또래관계와 같은 환경적, 관계적 보호요인들이 심리내적 요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 추후에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다학문적인 고려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밝혀진 낙관성을 중점으로 한 개입과 그 효과 및 또 다른 특화된 강점요인의 탐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묘정 (2005). **한부모 가족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이희경 (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498-499.
- 김성태 (1990). **발달심리학**. 서울: 범우사
- 김정수 (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1), 271-299.
- 김주용, 이지연 (2007).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115-136.
- 김청송 (2012). 청소년의 부적 정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강인성과 낙관성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4), 339-361.
- 김형섭, 김용구, 윤충한, 정한용, 정영기 (2000). 한국어판 사회적 자기평가척도 (SA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8(2), 212-227.
- 동승자 (2000). **이혼가정 아동의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배요한 (2009). **청소년 가족기능과 심리적 특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옥현, 손현규 (2004).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2), 181-193.
-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 (2003). 이혼가족 및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 11(0), 9-34.
- 신애란 (2002).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 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윤지혜, 이민규 (2007). 낙관성이 우울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62-263.

- 이가은 (2008). **이혼가정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승 (2000). **범불안장애**. 서울: 학지사.
- 이혜승 (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연구**, 11(1), 421-441.
- 장옥란 (2006). **낙관성 증진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낙관성,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이혼 가정 자녀의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2(1), 171-188.
-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2009). **청소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혜연, 이정운 (2009).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367-2381.
- 주소희 (1991). **이혼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경 (2013). 청소년의 진료성숙도 및 불안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4(4), 65-81.
- 최창숙 (2007). **이혼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 법무부 (2014).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2330호. 제4조 제2호.
- 한정원 (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7). 위계적, 종단적 자료에 대한 다층모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워크숍 자료집: 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숍 시리즈 II**, 18-30.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23-38.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

- Aseltine Jr, R. H. (1996). Pathways linking parental divorce with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2), 133-148.
- Bartell, D. S. (2006). Influence of parental divorce on romantic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A cognitive-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A. Fine, & J. H. Harvey (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 339-360). Mahwah, NJ: Erlbaum.
- Bendig, A. W. (1956). Th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5), 384.
- Bosc, M., Dubini, A., & Polin, V.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functioning scale, the 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7(1), 57-70.
- Botvin, G. J., Baker, E., Dusenbury, L., Botvin, E. M., & Diaz, T. (1995). Long-term follow-up results of a randomized drug abuse prevention trial in a white middle-class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3(14), 1106-1112.
- Buchanan, G. M., & Seligman, M. E. P. (Eds.). (1995). *Explanatory style*. Hillsdale, NJ: Erlbaum.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rlson, M. J., & Corcoran, M. E. (200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779-792.
- Colby, A., & Damon, W. (2010). *Some do care*. Free Press.
- Davidson, R. J. (1999). Neuro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affective styles and their cognitive consequences. In T. Da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103-23). New York: John Wiley.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Emery, R. E., Waldron, M., Kitzmann, K. M., & Aaron, J. (1999). Delinquent behavior, future divorce or nonmarital childrear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among offspring: A 14-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4), 568-579.
- Falci, C. (2006). Family structure, closeness to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par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47*(1), 123-146.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Garnezy, N., & Rutter, M.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Garnezy &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43-8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bb, B. E., Alloy, L. B., Abramson, L. Y., Rose, D. T., Whitehouse, W. G., Donovan, P., et al. (2001). History of childhood maltreatment, negative cognitive styles, and episodes of depression in adulthoo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425-446.
- Gillham, J., & Reivich, K. (2004). Cultivating optimism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146-163.
- Hetherington, E. M. (1999).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pp.323-344). NJ: Erlbaum.
- Hines, A. M. (1997). Divorce-related transitions, adolescent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2), 375-388.
- Hoyt, L. A., Cowen, E. L., Pedro-Carroll, J. L., & Alpert-Gillis, L. J. (1990). Anxiety and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1), 26-32.
- Johnston, J. R. (1995). Research update: Children's adjustment in sole custody

- compared to joint custody families and principles for custody decision making.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3(4), 415-425.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973.
- Kendall, P. (2011).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New York: Guilford Press.
- Kurdek, L. A. (1981).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8), 856-866.
- Lansdale, P. L., Cherlin, A. J., & Kiernan, K. E. (1995).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6(6), 1614-1634.
- Luecken, L. J., Appelhans, B. (2005). Information-processing biases in young adults from bereaved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2), 309-313.
- Mathews, A. (1990). Why worry? The cognitive function of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6), 455-468.
- McLanahan, S., & Sandefur, G. D.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 N.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40-54.
- Park, N., & Peterson, C. (2008). Positive psychology and character strengths: Application to strengths-based school counsel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2(2), 85-92.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American psychologist*, 55(1), 44-55.
- Plomin, R., Scheier, M. F., Bergeman, C. S., Pedersen, N. L., Nesselroade, J. R., & McClearn, G. E. (1992). Optimism, pessimism and mental health: A twin/adoption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8), 921-930.
- Risch, S. C., Jodl, K. M., & Eccles, J. S. (2004). Role of the father-adolescent

- relationship in shap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46-58.
- Roberts, C., Ballantyne, F., van der Klift, P., & Quan Sing-Rowlands, J. (2003). *Aussie optimism: Social life skills program(teacher resource)*. Perth, WA: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 Roberts, C., Kane, R., Bishop, B., Cross, D., & Fenton, J. (2004). The effectiveness of a universal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implemented in disadvantaged schools. In Roberts (Chair). *Mental health Promotion in Schools*. Symposium conducted at the Australian Association for Cognitive and Behaviour Therapy 27th National Conference. Informing the Scientist Practitioner, Perth, Australia.
- Roberts, R., Roberts, C., Cosgrove, S., Houston, K., Ludlow, T., Mar, D., et al. (2003). *Aussie optimism: Optimistic thinking skills program(teacher resource)*. Perth, WA: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16-331.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01-228.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57-1264.
- Schulman, P., Keith, D., & Seligman, M. E. P. (1993). Is optimism heritable? A study of twi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6), 569-574.
- Seligman, M. E. (2012). **낙관성 학습** (우문식, 최호영 역). 안양: 물푸레. (원저 2011 출판)
- Seligman, M. E., Castellon, C., Cacciola, J., Schulman, P., Luborsky, L., Ollove, M., et al. (1988). Explanatory style change during cognitive therapy for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1), 13.

- Seligman, M. E., Kaslow, N. J., Alloy, L. B., Peterson, C., Tanenbaum, R. L., & Abramson, L. Y. (1984).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2), 235-238.
- Shin, S. H., Choi, H. S., Kim, M. J., & Kim, Y. H. (2010). Comparing adolescents' adjustment and family resilience in divorced famil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primary caregiver.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11-12), 1695-1706.
- Silitsky, D. (1996). Correlates of psycho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6*(1-2), 151-169.
- Snyder, C. R. (2000). Genesis: The birth and growth of hope.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ies, measures, and applications* (pp.25-38). New York: Academic Press.
- Størksen, I., Røysamb, E., Holmen, T. L., & Tambs, K. (2006). Adolescent adjustment and well-being: Effects of parental divorce and di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7*(1), 75-84.
- Strauss, C. C., Frame, C. L., & Forehand, R. (1987). Psychosocial impairment associated with anxiety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3), 235-239.
- Strohschein, L. (2005). Parental divorce and child mental health traject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5), 1286-1300.
- Teja, S., & Stolberg, A. L. (1993). Peer support,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0*(3-4), 45-64.
- Troxel, W. M., & Matthews, K. A. (2004). What are the costs of marital conflict and dissolution to children's physical healt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7*(1), 29-57.
- Vinokur, A., & Selzer, M. L. (1975). Desirable versus undesirable life event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and ment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2), 329-337.
- Weissberg, R. P., & Greenberg, M. T. (1998). School and community

competence-enhancement and prevention programs. In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877-954). New York: Wiley.

Zautra, A. J., & Reich, J. W. (1983). Life events and perceptions of life quality: Developments in a two-factor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2), 121-132.

## ABSTRACT

### The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ocial adap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and intact families\*

Park, Jihye\*\* · Kim, Keunhyang\*\* · Ko, Younggu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roles of optim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ocial adap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participants comprised 80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families and 98 adolescents from intact families. They were asked to complete the Children's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CASQ), Taylor's Manifest Anxiety Scale (TMAS),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KvSAS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Scale. The results revealed that optimism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ocial adap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single parent family group. However, no moderating effects of optimism was found in the intact family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successful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families should focus on the question of optimism.

Key Words : adolescents, single parent family, anxiety, social adaptation, subjective well-being, optimism

투고일 : 2013. 12. 9, 심사일 : 2014. 2. 18, 심사완료일 : 2014. 2. 27

---

\* This study was reconstructed based on a master's thesis of Jihye Park.

\*\* Department of Psychiatry,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